

# 산업화 이전 사회에서의 여성의 경제활동

A Study on the Labor Experience of Women in Pre-Industrial Society

순천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소비자·가족아동학과  
전임강사 김 성 희

Dept. of Consumer and Family-Child Studies, Sunchon National Univ.

Instructor : Sung Hee Kim

## 〈목 차〉

- |                 |          |
|-----------------|----------|
| I. 서론           | IV. 노동부담 |
| II. 연구방법        | V. 결론    |
| III. 여성의 가내생산활동 | 참고문헌     |

## 〈Abstract〉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clarify the labor experience and to understand the labor burdon of women in pre-industrial society. For the purpose, This study made use of literature review and narration from 20 elders above 70 years old.

It was founded that women in pre-industrial society had participated in public labor which had related to nation and household economy. Especially the participation in textile manufacture was evaluated that had produced lots of economic value. The labor burdon of married women in pre-industrial society was founded great.

### I. 서론

1960년대 이후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여성의 취업비율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산업시대에 특징적으로 나타난 현상으로 보이게 한다. 한편 가정에서 수행되는 가사노동을 생산활동으로 간주하지 않는 산업사회의 통념은 산업화 이전 가내에서 수행되던 여성의 생산활동도 경제활동으로 인식케 하는

것을 어렵게 한다.

산업화 이전 가내노동은 가족의 자급자족을 위해 사적으로 수행되었을 뿐아니라 국가의 조세납부 또는 시장교환 등을 위해 공적, 영리적으로 수행되기도 했다. 현대 산업사회의 가사노동이 갖는 효용 창출의 특성과 취업노동이 갖는 소득 창출의 특성을 전통사회의 가내노동은 모두 갖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가정이라는 장소에서 수행되기는 하였지만 산

업화 이전 사회의 가내노동은 화폐교환적 가치를 생산하였다는 점에서 산업사회의 경제활동과 같은 범주로 분류될 수 있다.

산업화 이전 사회의 여성들은 산업사회의 취업주부와 마찬가지로 가내노동을 통해 가계 및 국가 경제에 기여하였다. 그럼에도 이들의 노동을 경제활동이라는 측면에서 연구한 것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는 산업화 이전 사회의 여성노동을 연구함에 있어 오늘날의 가사노동을 연구하는 시각으로 사적인 측면만 조명하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전통사회 여성의 노동에 대한 연구가 김성희·이기영(1992), 이효재(1985), 임인영(1987) 등의 연구를 제외하고는 주로 풍속적인 차원에서 접근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측면을 반영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산업화 이전 사회의 일반여성들의 가내노동을 오늘날의 취업노동과 같은 공적이고 화폐 교환적인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측면은 특별히 직조활동에서 잘 나타나므로 이를 중심으로 과거 여성들의 경제활동 상황 및 경제적 기여를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 취업과 관련된 여성의 이중부담은 산업사회에서 새롭게 등장한 현상으로 접근되고 있다. 그러나 산업화 이전 사회의 여성들도 사적인 노동 외에 공적인 생산 노동에도 참여하였기 때문에 오늘날과 같은 과중한 노동부담을 지니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여성들의 사적 노동과 공적 노동에 대한 이중부담은 역사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여성문제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대 여성의 문제를 살펴보는 하나의 준거로서 과거 여성의 노동부담도 고찰해보고자 한다.

## II. 연구방법

### 1. 연구범위

산업사회에서 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는 사람은 취업자와 구직자이고 가정주부는 비경제활동 인구로 분류된다(통계청, 고용구조조사보고서). 이에 따르면 과거 산업화 이전 사회에서 여성들이 가내에서 수행

하던 노동은 오늘날의 가사노동처럼 주부에 의해 가정에서 수행되었기 때문에 경제활동으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문제로부터 본 연구에서는 경제활동의 범주를 시장노동 뿐 아니라 가내노동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확장한다.

산업사회의 시대적 구분에 대해서는 조선말기, 해방이후 등 여러 논의가 있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경제개발계획으로 기업활동이 증가되어 여성의 시장노동으로의 참여가 뚜렷해지는 1960년대 이후를 산업사회로 본다. 1960년의 경우에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6.8%에 지나지 않았으므로(통계청, 고용구조조사보고서) 이전의 여성들 특히 주부들은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가내노동 중심이었다고 볼 수 있다.

〈표 1〉 심층면접 대상자의 1950년대 무렵의 일반적 성격

사례	현재연령	소득수준	자녀수	가정고용인
1	75	중하	5	무
2	73	중	4	무
3	70	하	8	무
4	70	중하	6	(조카)
5	85	중	7	머슴 1명
6	70	하	5	무
7	76	중	5	무
8	70	중하	3	무
9	70	중상	6	남자일꾼 1명
10	72	중상	4	무
11	70	중	5	무
12	70	하	2	무
13	72	중상	3	무
14	79	중상	6	하인 1명
15	78	중	8	무
16	71	하	5	무
17	70	중하	6	무
18	73	중	5	무
19	82	중상	7	하인 1명
20	77	중하	4	무

## 2. 연구자료

본 연구에서는 일차적으로 문헌자료를 통해 산업화 이전 사회에서의 여성의 경제활동 상황을 연구한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서 거시적 통계 자료와 같은 공식적 자료는 찾아보기 어려운 상태이므로 개인적 문헌도 신뢰성이 있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자료로써 활용한다.

그리고 부족한 문헌자료를 보완하기 위해 1960년대 이전에 주부였던 현재 70세 이상된 노인 20명과 심층면접 자료도 이용한다. 면접노인은 산업화 이전의 전통사회를 대표하기 위해 가내노동이 주로 이루어졌던 농촌에 거주지를 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

면접노인에 대해서는 일반적 성격으로 현재 연령, 35세 무렵의 소득수준, 가정고용인 유무, 자녀수를 조사하였다(표 1). 심층면접에서는 과거 35세 무렵 돈벌이가 되는 일을 해본 경험이 있는지, 어느 정도의 시간을 투자했는지, 가계에 기여한 정도는 어느 정도였는지를 조사하였다.

## Ⅲ. 여성의 가내생산활동

### 1. 직조노동

#### 1) 노동상황

직조는 부녀의 일로서 지역에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행해졌다. 조선팔도에 함경도와 강원도의 산군을 덜고는 목화를 심지 않은 곳이 없었다(이능화, 1982: 266). 목화가 재배되지 않는 함경도 일대의 관북지역에서는 대신 마가 왕성하게 재배되었다(槐村秀樹, 1983:118). 견직물의 경우는 평안도, 경상도, 함경도, 강원도, 전라도 각지에서 생산되었다(槐村秀樹, 1983: 118). 직조는 조선의 거의 전 지역에서 행해졌다고 볼 수 있다.

길쌈은 신분에 따라서도 차이없이 행해졌다. 국가적으로는 종상지법(種桑之法)이 있어 후비(后妃)가 친히 누에치기를 하였다. 그리고 대가집의 부녀라 할지라도 가계가 곤궁하면 이를 내업으로 삼았다. 상류층의 부인으로서 가계운영을 위해 직조활동을 한 예는 다음의 윤씨부인 행장문(김용숙, 1971:20-21 재인용)에 잘 나타난다.

‘김만중의 모친 윤씨부인은 공주의 손녀로 무남독녀로 귀히 성장했건만, 병자호란에 남편 잃고 아들 형제를 길러내면서 손수 베틀에 앉아 명주를 짜고 아들의 책을 사기위해 짜던 명주를 중도에 끊어 바꾸었다.’

조선사회에서 양반이나 선비는<sup>1)</sup> 사농공상(士農工商)이라하여 생업경영을 경시하였으므로 남편을 대신하는 부인들의 경제적 역할은 매우 중요하였다. 가난한 선비 아내들의 가계운영은 다음과 같은 외국인의 관찰 기록(헐버트, 1984 :343-344)에서 잘 찾아볼 수 있다.

‘한국의 여자에게 부여되는 으뜸의 과업은 아내로서의 역할과 어머니로서의 역할이지만 남편이 빙충 맞고 남에게 의지하기를 좋아하거나 심보가 사나울 경우에는 그의 돈벌이를 보조하여 가계를 도와야 할 때가 많다. 비단은 한국의 중요한 산업으로 되어 있는데 그 공장에서 여성들이 큰 역할을 하며 시골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누에알을 간수하고 뽕을 먹이며 고치를 따고 실을 뽑는데 있어서 농부가 된 몰락한 선비의 아내들은 많은 시간을 보내며 물질적으로 가계를 돕는다.’

남편을 대신하는 부인의 경제적 역할과 노동상황의 고달픔은 다음의 면접노인 <사례 18>의 구술 속에서 생생하게 나타난다.

“근데 고놈의 글쟁이랑 사니라고 얼매나 일에 찌들었는지. 그놈만 생각하매 속이 터져. 공자가 밥을 쥐. 떡을 쥐. 고놈의 글만 생각하면 치가 떨린당께. 그 글쟁이는 돈 벌 생각을 안혀. 새끼들 클 때 핵교

1) 조선시대의 신분을 양반, 상인(常人), 노비로 대별할 경우, 중기의 신분별 인구구성은 양반이 약 5-10%, 상인(常人)이 45-50%, 노비가 40-45%였다(손정목, 1977:104). 한편 19세기 양반의 토지 소유상황을 보면 부농이 7.1%, 중농이 11.3%, 소농이 25.6%, 빈농이 55.0% (김용섭, 1972: 5)로 대부분의 양반은 영세하였고 볼 수 있다.

(학교)보낼라고 나가 뭐 별짓 안한 게 없이 했제. 나가 젊었을 때는 배를 잘 짚시야. 남들 모실갈 때(늘러갈 때) 배 짠 것만 생각하면 치가 떨려.”

지역과 신분고하에 관계없이 행해졌던 부녀들의 직조노동은 특히 양반계층에서는 남성들의 신분유지의 기반이었다는 점에서 사회안정에도 기여하는 바가 컸다고 볼 수 있다.

## 2) 경제적 가치

### (1) 가정경제 및 국가경제에의 기여

여성들의 직조활동은 가족원의 소비를 위한 자급자족적 활동이었을 뿐 아니라 가계의 소득획득을 위한 상품 생산 활동이기도 했다. 홍양호의 이계집(이능화, 1982 재인용)에 따르면 직조는 자가소비를 위해서보다는 오히려 시장교환을 위해 더 많이 생산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3월에 심은 삼을 7월에 거두어, 5월에 실을 내어 열흘 남짓 행구어서, 부드러운 손을 돌려 가는 배를 짜내니, 매미 날개인 듯 얇아서 주먹 안에 드는데, 아깝게도 남쪽 상인에다 넘겨주고, 몸에다간 거친 배로 몽당치마 두루도다.’

부녀들의 직조노동이 가계수입의 주요한 원천이었고 가계의 부를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였다는 것은 다음의 기록(이능화, 1982)에서 잘 찾아볼 수 있다.

‘농가의 집집 부녀가 무명짜기를 정업으로 하여 시골에서 부자가 되는 일이 있다. 이들 거의가 부녀의 길쌈으로 기초를 삼아 점점 업을 불리어 나간 사람들이다. 가난한 집으로 이를진대 부녀가 직조를 하여 어려운 살림을 꾸려 나가려니 스스로는 치마저고리도 제대로 없는 이가 많았다.’

직조를 기반으로 가계를 운영하고 가산을 늘려 간 예는 다음과 같은 구술에서도 잘 나타난다.

“옛날에는 없는 사람들은 비(베) 팔아서 식량도 받아 먹기도 하고, 있는 사램이(사람)은 돈을 모다가 논밭도 사고 그랬니다...옛날에 어려울 때 비짜가 살림에 마이 보태 썼지요(김점호, 1990).”

여성들이 직조를 통해 가계에 기여한 정도는 치부에 이르기까지 매우 컸던 것 같다. 거부들로 소문난 진주의 곱냥이 김정부인이나 평양의 백과부인 백선

행, 영암의 으뜸 거부인 길과부 등이 모두 배를 잘 짜던 부인들이었다고 한다(윤무한, 1977).

부녀들의 직조를 통한 경제활동은 가계운영 중에서도 특별히 자식 교육을 위해 행해졌던 것 같다. 면접노인 <사례 20>은 젊어서 이틀에 20제(필)씩 짜서 팔았는데 두 자녀 학교다니는데 학비로 썼다고 했다. <사례 19>도 삼베, 명지베, 면베를 짜서 판 돈으로 자식 가르치고 논도 사다 했다.

직조활동을 통한 가계의 수입 증대는 여성교육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장려되었다. 여성교육서인 여사서(이규순 교주, 1983: 51-52)에서는 ‘명주와 견직물과 모시와 삼베를 직조하는데 겹치게 하면 또한 가치 돈으로 팔 수 있다’ 하였다. 물질생활을 경시하고 상업을 경시하던 유교적 전통속에서 남성역할에 대한 보완으로 여성의 생산활동이 권장되었다고 볼 수 있다.

부녀의 직조노동은 가정경제 뿐아니라 국가경제와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삼베는 물품화폐로서 고려시대에 이미 널리 통용되었고 15세기 초까지도 물품화폐로서 주종을 이루었다. 이후 무명이 보급되면서는 무명이 물품화폐의 주종을 이루었다. 15세기에 국가가 화폐로서 공인한 정포(正布) 1필은 5승(80가닥) 폭은 7촌(32.8cm), 길이는 35척(16m 38cm)이었다(이현창, 1997:121).

직조물은 국폐(國幣) 외에 납세물로서도 국가경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양역세의 경우 남정(男丁) 1인당 면포 2필(쌀 12斗)을 징수하였고, 균역법에서는 남정 1인당 면포 1필을 징수하였다(김성우, 1997: 205). 이 밖에 직조물은 대일무역의 지불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하였고 군사의 급료로도 지급되었다(이효재, 1985:158-159).

### (2) 직조물의 상품가치

직조의 상품화 정도는 면포생산량 통계자료와 자가소비량으로부터 유추해 볼 수 있다. 1887년 경상·충청·경기도에서 조사된 면포 생산량을 보면 1호당 평균 생산량은 최하 2필에서 최고 40필에 이르렀다(樵村秀樹, 1983:140). 1895년 자료에서는 주요 면업 지역의 1 호당 직조량은 최하 3필에서 최고 60필(樵村秀樹, 1983:143), 평균적으로는 13필이었다.

자가소비를 위한 직물량은 한 사람이 한 벌의 의복만을 입고 지낸다고 가정할 경우, 사용기한이 3년 정도이므로 1인당 최소한 1년에 1/3필이 필요하게 된다. 가구당 평균 인원수는 19세기 농가의 경우 4인을 약간 넘었고(四方博, 1937:54; 김용섭, 1972:134, 재인용), 조선후기 도시가족의 경우에도 3-4인에 지나지 않았다(최재석, 1986:482). 4인을 평균 가구원수로 본다면 가구당 자가소비량은 연간 2필 정도로 추산된다. 그리고 조선의 법제가 모든 양민 성년 남자에게 병역대신 연 2필의 면포를 징수하고 있으므로(梶村秀樹, 1983:123) 성인 남자가 1인 있는 가구에 서는 연간 최소한 4필 정도가 필요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자가소비량이 4필 안팎에 이르는데도 가구당 평균 13필 정도를 생산했다고 한다면 나머지 9필은 시장 교환을 위해 생산되었다고 볼 수 있다.

면포 1필의 가격은 미곡(米穀)으로 환산하여 16세기 말에 4두(斗:말)에 해당하였다(송재선, 1985:415). 18세기 중엽 속대전에 따르면 5승의 무명이나 삼베 1필은 모두 2냥, 쌀 1섬은 5냥이었다(이현창, 1997:126). 18세기에도 베 1필은 쌀 4두와 같았으므로 삼베 1필을 대략 쌀 4두에 해당한다고 보면, 9필을 상품화할 경우 쌀 36두를 구입할 수 있었다.

18세기 후반 이덕무는 '청장관전서'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침 저녁으로 5홉을 먹으니 하루에 한 되 먹는다고 하였다(염정섭, 1997:234). 삼베 9필을 쌀로 바꾸면 4인 가족이 약 90일 먹을 쌀을 구입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박지원은 1799년 양인농민층의 예로써 5명 정도의 노동력과 소 1마리를 가지고 논과 밭 모두 약 1결 2부 정도를 경작하여 연간 피곡(皮穀) 497두를 생산하는 소작농을 들었다(김성우, 1997:206). 대략적으로 농민 1명이 100두의 농산물을 생산하였다고 볼 때, 최고 60필의 베를 짜는 부녀는 240두의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과 같은 가치를 생산하였다고 볼 수 있다. 정다산이 '일직부녀승삼농부(一織婦女勝三農夫: 김영호, 1972:189 재인용)'라 하여 부녀 1인이 농

부 3보다 낫다고 한 것은 이러한 결과를 두고 한 말로 볼 수 있다. 부녀들이 직조활동을 통해 얻는 상품가치는 남자들이 논농사를 통해 얻는 가치를 훨씬 웃돌았다고 볼 수 있다.

## 2. 기타 가내노동

산업화 이전 사회의 여성들은 직조 외에 다른 여러 경제활동에도 참여하였다. 이는 선비의 아내들도 예외는 아니었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최남선(1944)의 글에 잘 나타난다.

‘한경(서울)에서 사인(土人)이라는 남자는 아무리 궁하나 속수무책하거늘 안에서는 바느질, 세탁 외에 계아(닭과 거위)를 기른다, 장유(醬酒)를 담근다, 초유(醋油)를 담근다, 염색을 한다, 박물관(博物)을 판다 하여 온갖 내조로써 가계를 버터가는 것이 도리어 비장의 느낌을 주었다.’

헨버트 기록(1984: 343-344)에서는 집안이 궁핍한 많은 귀부인들이 위와 같은 일 외에 그들보다 부유한 집의 딸을 가르치는 일을 한다고 하였다<sup>2)</sup>.

양반부인일지라도 직조 외에 여러가지 경제활동으로 생업을 꾸려가는 것은 교육서에서도 권장되었다. 이덕무는 선비의 아내에 대해 생활이 곤궁하면 생업을 약간 경영할 수 있다 하였다. 길쌈하며 누에치는 일은 원래 부인의 본업으로 닭과 오리치는 일이며 장, 초, 술, 기름들을 판매하는 일과 대추, 밤, 감, 굴, 석류 등을 잘 저장했다가 적기에 내다 파는 일, 염료인 홍화, 자초, 단목, 황울, 검금, 염청 등을 사서 쌓아두는 일은 부업으로 무방하다 했다(김병하, 1985: 341 재인용).

산업사회 이전의 여성은 가내노동으로 시장 교환 상품을 생산하였을 뿐 아니라 시장활동에도 적극 참여하였다. 이능화(1982:273)는 함경도에서는 여자가 장에 나가 파는 일을 많이 하는데 풍속에 집의 닭이 달걀 몇 개만 낳아도 장에 가지고 가서 판다고 했다. 최남선(1944: 194)은 우리나라 원래의 부녀생활

2) 가정교사는 1910년 무렵 하인과 다름없는 지위에 있었는데 보수는 숙식과 함께 20원 정도(당시 나락 한섬이 20원) 통근할 때는 30원 정도를 받았다고 한다(임종국, 1995).

〈표 2〉 산업화 이전 사회에서의 여성의 경제활동의 종류와 가계에의 기여도

사례	경제활동의 종류	가계기여도
1	다른집 농사일을 도와 주고 현물로 받기, 나무해서 장에 팔기	1/3 정도
2	벼농사, 보리농사, 봄나물캐서 팔기	전부
3	농사일	거의 동등
4	논일, 밭일, 소키워 짓팔기, 병아리키우기, 과수재배	반찬사는 정도
5	생선 팔러다니기, 텃밭가꾸어 장에 내다팔기, 돈꾸어주고 이자받기, 길쌈	적절히 도움이 됨
6	부업일 해주고 보리나 밀가루, 누룽지 받아오기, 텃밭 가꾸어 장에 내다 팔기	생활비의 거의 대부분
7	남의 모 심어주고 돈받기, 텃밭 가꾸어 팔기	따지기 어렵다
8	농사일 돕고 밥 얻어먹거나 곡식 얻어오기, 돈받기, 가마니 만들어 팔러 다니기, 채소 가꾸어 팔기	1/3-1/2정도
9	건어물 팔러다니기, 채소길러 내다 팔기, 길쌈	많은 도움이 됨
10	남의 일 도와주고 음식물 받아오기, 채소 심어 내다 팔기, 길쌈해서 내다 팔기,	.
11	품삯받고 일하기, 베짜서 내다 팔기, 샅바느질, 텃밭에서 채소 내다 팔거나 다른 것으로 바꾸어 오기	아이들 공부시킴
12	남의 집 일해주고 식량받기, 베짜기	논사고 소사는데 보탬
13	농사, 밭농사, 길쌈, 품앗이해서 쌀 1되나 보리 2되 받음, 방 8칸 중 5칸을 세놓음	.
14	길쌈	살림살이에 약간보탬
15	품앗이 해주고 음식 얻어오거나 돈 받아오기, 베짜서 옷이나 이불 만들어 팔기, 돈 빌려주고 이자 받기, 중매해서 돈받기	생계유지
16	길쌈, 농사일 돕고 돈받기, 나무해서 내다팔기, 텃밭 가꾸어 팔기, 가축기르기	생계유지할 정도
17	베짜기, 채소 내다팔기	큰 비중을 차지, 베 팔아서 논을 삼
18	가축기르기, 베짜기	가계에 큰 도움
19	베짜서 팔기	자식 가르치고 논 삼
20	벼농사, 밭농사, 베짜기, 가마니짜기, 생선 팔러다니기	학비보태고 입에 풀칠

은 실상 꽤 자유활발하니 영남일부와 관북 전체에서는 시장에 나와서 매물양면 흥정하는 이가 거의 여성이라고 했다.

면접노인들도 〈표 2〉에서 보듯이 논밭농사 외에 품팔기, 가축기르기, 나무해다 장에 팔기, 채소 길러 장에 팔기 등 다양한 경제활동을 하였고 시장활동에도 참여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들의 경제적 기여는 논사는데 보태는데서부터 생활비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기까지 적지 않았다.

#### IV. 노동부담

##### 1. 직조노동 부담

산업사회 이전 여성들이 직조에 들인 시간과 노력을 보면 겨울에는 무명과 명주를 많이 하고 삼베는 여름으로 하였는데, 베를 한 필 짜는데 오십일, 무명은 오일 정도 걸렸다고 한다(김점호, 1990:124, 147). 부녀가 먼포 1필을 원사에서 다 짜기까지는 적어도

10일 정도의 노동이 필요했다고 하기도 한다(梶村秀樹, 1983:171).

면포를 짜는데 10일 정도 걸린다고 보면 자가소비를 위해 4필의 면포를 짤 경우에는 40일 정도, 그 밖의 상품화를 위해 40필을 짤 경우에는 일년 내내 직조일을 했었다고 볼 수 있다. 하루 중 직조에 들인 시간과 노력에 대해서는 다음의 구술에서 유추해 볼 수 있다.

“예전엔 칠월 한달이라 하든 잠을 안자고 해요. 잠도 못자고 하니께네 ‘칠월 칠삼 애삼 길쌈’이라 했지. 옛날에는 농사지어 가매 사이사이 했거든. 소가들에 나가 일하면 소 낫죽 썬어가지고 여다 날라야지, 또 일꾼이 일하러 가면 점심밥 여다 날라야지 그 사이에 베를 짜니 참 애먹었었다(김점호,1990)”.

면접노인들도 농사 부담에 따라 날 밝아서부터 해질녘까지 거의 하루 종일 또는 저녁부터 자기 전까지 직조노동을 하였다고 했다(표 3).

## 2. 총 가내노동 부담

산업화 이전 사회의 부인들은 일부 부유한 상류부인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밭짓기, 의복만들기, 직조하기, 들일하기 등의 가내노동으로 쉴 틈이 없었다. 계층에 따른 조선부인들의 노동상황은 다음의 기록(다래, 1949:211-212)에서 그 차이를 찾아볼 수 있다.

‘귀족의 처는 자기들 자손에 대하여는 조금도 생각지 않고 하인을 감독하고 내실의 질서유지에 급급하다. 귀족의 처의 일생은 거의 완전히 태타(怠惰)중에 경과된다. 그러나 평민의 처는 괴로운 노동을 한다. 그들은 요리도 하고 베도 짜고 그것으로 의복도 만들고 의복을 세탁하고 말리고 가정의 모든 일을 처리하고 그 위에 여름에는 들일을 하여서 남편을 돕지 않으면 안된다. 남자들은 파종과 수확기에 일하고 겨울에는 휴양한다. 겨울동안에 그들의 유일한 일은 산에 가서 불 땔 나무를 하는 것이다. 남는 시

〈표 3〉 산업화 이전 사회에서의 주부의 노동시간

사례	일일 노동시간	직조 노동시간
1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
2	4시부터 늦게까지	.
3	4시부터 9시	.
4	아침부터 저녁까지	.
5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
6	5시부터 9시경	.
7	7시부터 밤 12시까지	.
8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
9	.	날 밝아서부터 해질녘까지 거의 매일
10	.	잠자기 전에 약간 정도
11	.	농사일 끝나고 닭 울때까지
12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저녁부터 밤 1시까지
13	6시부터 밤 늦게	아침부터 자정까지 밤새도록
14	.	농한기에 하루종일
15	6시부터 11시까지	아침에 2시간 저녁에 4시간 정도 거의 매일
16	6시부터 9시까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17	3시부터 밤 11시까지	.
18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거의 하루 종일 매일
19	5시에서 새벽 1시까지	매일 오전 한두시간, 논밭일하고 늦은 밤까지
20	.	거의 매일 틈틈이

간에는 놀고 담배 피우고 자고 친척과 지인을 방문하며 보낸다. 처들은 거의 노예와 같이 전연 놀 때가 없다.

일부 부유한 귀족 부인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가난한 선비나 평민의 부인들은 쉴 틈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사벨라 버드 비숍(1994:393)은 19세기 말 여성의 노동상황을 '한국의 농촌여성들은 일찍 일어나고 자정이 넘어서야 휴식하며, 틈날 때마다 실을 뽑고 베를 짠다.'고 전하고 있다.

노인들과의 면접에서도 하루의 일과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였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들은 빠르게는 새벽 4시부터 일어나 밤 12시 넘어 늦게까지 일하였다(표 3).

하루 일과의 고달픔에 대해서는 면접노인 <사례 3>의 경우 다음과 같이 구술하고 있다. "그 땀 일이 더 많았거든...아무튼 낮 동안에는 뼈빠지게 일하고... 그래서 여자들은 놀 시간이 없었어... 아무튼 하루 중 일 쉴 시간은 없었어. 잠 짤 때만 빼고는..."

<사례 19>도 젊어서 "새벽부터 뼈가 휘도록 일했어... 쉴 시간도 없었어. 잠도 제대로 자 본적이 없는디(없는데)"라고 술화하였다.

면접노인의 일과를 시간대별로 살펴보면(표 4) 식사준비, 논밭일하기, 가축돌보기, 빨래하기 등의 노동으로 쉴 틈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V. 결 론

산업화 이전 사회의 여성들은 산업사회의 취업주부와 마찬가지로 가사돌보기와 같은 사적 노동 외에 국가경제와 가정경제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공적 생산노동에도 참여하였다.

특히 신분에 관계없이 거의 전 지역에서 부녀에 의해 행해졌던 직조노동은 국가의 화폐와 조세품목으로서 명백한 화폐교환적 가치를 갖고 있었다. 직조물은 자급자족용으로서보다 생계유지, 조세납부, 가산늘리기, 자녀교육비 조달과 같은 가계운영의 수단으로 상품화되는 경우가 많았다. 직조물의 상품가치는 조선후기에는 대략 남성노동의 결과물보다 3배 정도의 가치를 갖고 있었다.

직조노동 외에도 부녀들은 논농사, 밭농사, 가축기르기, 채소길러 팔기, 나무해다 팔기, 품팔기 등과 같은 경제활동에도 참여하였다.

여성의 경제활동은 남성의 생업경영을 경시하는 유교적 전통 속에서 남성의 역할을 보조 또는 보완하는 역할로 교육서에서도 강조되고 권장되었다.

산업화 이전 사회의 여성들은 오늘날의 취업주부와 마찬가지로 가사돌보기의 사적 노동 외에 공적 생산노동으로 쉴새없이 일하였다. 대부분의 경우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으며 여가는 거의 없었다. 노동의 과중성은 오늘날에는 취업주부들의 문제이지만

<표 4> 산업화 이전 사회에서의 주부들의 일일 생활시간

사례 13	사례 15	사례 19
6시 기상해서 식사준비(물건기, 불피기, 쌀보리씻기)	6시 일어나 아침식사준비	5-6시: 일어나서
7시 집안청소	10시까지 집안일, 청소 등	물건기, 밥짓기, 빨래하기
8시 가축돌보기	10-12시 삼베짜기	6-8시 길쌈
9시-12시 농사일	1시 점심식사	8-12시 논밭일
12시- 2시 점심준비	2시-5시 빨래하기 장보기, 아이보기	12-1시 점심준비
2시-5시 농사일	6시 저녁식사	1-5시 논밭일
6시 저녁식사준비	7-11시 삼베짜기	5-6시 물건기, 저녁준비
7시 빨래		6시-새벽1시 길쌈
이후 옷감짜기		



전통사회에서는 대부분의 여성들의 문제였다고 볼 수 있다.

과거 대다수의 부녀에 의해 가내에서 행해졌던 공적 생산노동은 현재는 일부 주부에 의해 취업을 통해 사회라는 다른 장소에서 수행되고 있다. 산업화 이전 사회에서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는 선비의 아내를 포함하여 상민여성에 의해 보편적으로 행해졌던데 비해 산업사회에선 취업주부라는 일부계층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가정주부들은 경제난으로 취업과 부업의 길을 모색하고 있다. 산업화가 시작되면서 취업주부라는 새로운 역할범주가 생겨나기는 하였지만 가계운영의 보조자 또는 주도자로서 주부의 역할은 산업화 이전에도 강조되어 오던 것이었다.

오늘날의 취업주부와 산업화 이전 사회에서 생산노동을 수행하던 주부와는 차이점은 가정과 일터가 공간적으로 분리된 장소에서 일한다는 것이다. 산업사회의 남성과 산업화 이전 사회의 남성의 차이점은 과거의 남성들은 생산적 노동과 더불어 가사도 돌보았지만 현재는 경제활동만 한다는 것이다. 남성들은 가정과 일터의 분리로 일이 덜어졌지만 취업주부들은 경제활동과 더불어 여전히 가사도 돌보고 있다. 오늘날의 취업여성의 문제는 가사노동에 대한 사회적 노동의 새로운 부과라는 관점에서 파악해 볼 수도 있지만 남성의 일은 덜어진 반면 여성에겐 큰 변화가 없었다는 관점에서 파악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김병하(1985). "아정·이덕무의 경제경영사상". 한국 근대사회경제사연구. 정음문화사.
- 김성우(1997). "농민의 조세부담". 조선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한국역사연구회. 청년사.
- 김성희·이기영(1992). "전통사회 여성의 가내노동 특성과 경제적 가치". 생활과학연구 제17권. 서울대학교 가정대학.
- 김영호(1972). "조선후기 수공업의 발전과 새로운 경영형태". 19세기의 한국사회. 대동문화연구원.
- 김용섭(1972). "18·9세기의 농업실정과 새로운 농업경영론". 19세기의 한국사회. 대동문화연구원.
- 김용숙(1971). 이조여인상연구. 아세아여성연구 제10집.
- 김점호 구술·유시주 편집(1990). 베도 술한 베 짜고 밭도 술한 밭 매고. 뿌리깊은 나무.
- 다래. 이능식·윤지선 역(1949). 조선교회사. 대성출판사.
- 성춘식 구술·신경란 편집(1990). 이부자리 피이 놓고 암만 바래도 안와. 뿌리깊은 나무.
- 손정목(1977). 조선시대 도시사회연구. 일지사.
- 송재선(1985). "16세기 면포의 화폐기능". 변태섭박사 회갑기념사학논총. 삼영사.
- 염정섭(1997). "농민의 하루살이와 한해살이". 조선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한국역사연구회. 청년사.
- 윤무한(1977). "박물지·목화". 여성동아.
- 이규순 교주(1983). 여사서. 문학세계사.
- 이능화·김상익 역(1982). 조선어속고. 대양서적.
- 이사벨라 버드 비숍. 이인화 옮김(1994). 한국과 그 이웃나라들. 살림.
- 이현창(1997). "동 한냥, 쌀 한말, 베 한필의 가치". 조선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한국역사연구회. 청년사.
- 이효재(1985). "한국여성노동사연구 서설". 여성학논집 제2집.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소.
- 임인영(1987). "한국근대여성의 경제활동참여사". 아세아여성문제연구소. 숙명여자대학교.
- 최남선(1944). 고사통. 삼중당.
- 통계청(1960, 1992). 고용구조조사보고서.
- 헨버트, H.B. 신용복 옮김(1984). 대한제국벌명사. 평민사.
- 梶村秀樹(1983). "이조말기(개항후) 면업의 유통 및 생산구조". 한국근대경제사연구. 사계절.